

# 수해경험 노인의 구호인적자원과 구호서비스 활용에 관한 연구

정순돌\*, 김고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요 수해지역의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의 구호인적자원 및 구호서비스 활용정도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해 시 노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강원도 지역과 2007년도 태풍 나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고흥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204명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구호인적자원 활용의 경우 우리 나라 노인들은 비공식적 자원보다 공식적 자원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호서비스 활용의 경우는 인명구조, 생필품 지원, 신체적 치료 및 약품 지원 등을 활용한 노인이 많았으나 앞으로 활용을 원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족에 대한 소식제공, 정확한 정보제공, 심리적인 안정지원을 원하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호인적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비공식적 인적자원에는 사회적 지지구축, 소득 및 건강상태, 거주기간으로 나타났고, 공식적 인적자원에는 소득과 대처행동 중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호서비스 활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대처 전략 중 사회적 지지추구와 회피중심, 앞으로 필요한 구호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거주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해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주제어:** 수해, 노인, 인적자원, 서비스자원, 서비스 활용

## 1. 서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는 강한 태풍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속출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해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와 막대한 영향과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2006년 7월 강원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와 2007년 9월 발생한 제 11호 태풍 나리는 엄청난 폭우와 강풍으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수해지역에는 노인 피해자가 많은데, 강원도 지역의 발생 이재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률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노인가구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 내부자료, 2006).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은 건강의 악화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높은 위험수준에 처하게 되며(Phifer et al., 1988; 정순돌, 2009),

\* 주저자, \*\* 교신저자.

이들의 수해대처 능력은 더욱 취약해진다(Aldrich & Benson, 2008; Fernandez et al., 2002). 실제로 수해발생시 노인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어도 피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자, 2007). 또한 수해로 인한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노인들에게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한다(Ollendick & Hoffman, 1982; Phifer, 1990).

노인들이 수해 시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데, 노인들은 수해 시 위험집단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와는 달리 구호 인적자원이나 구호 서비스 활용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riedsam, 1960; Friedsam, 1962). 수해를 당한 사람들의 특성과 구호지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을 받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해복구 시 노인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외부의 도움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Haines et al., 1996). 실제로 2007년 태풍 나리의 경우 노인들이 수해 직후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는 15%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영준 등, 2008). 또한 수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클수록 지원을 받는 정도가 청년, 중년의 피해자들의 경우 급격히 증가하나 노인의 경우 수해 정도가 증가하여도 지원 정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Kaniasty & Norris, 1995). 이는 수해 복구 과정에서 취약한 노인 인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Ticehurst 등(1996)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는데 노인들은 자연재해 후 더 많은 우울 증상을 겪음에도 상담서비스나 다른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외국의 경우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호인적자원이나 구호서비스 연구를 바탕으로 수해 시 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 수해지역의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활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구호인적자원이나 구호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이 구호인적자원과 구호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이를 경험한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해를 경험한 한국 노인들이 구호인적자원과 구호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와 수해 시 필요로 하는 구호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구호인적자원 및 구호서비스 활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혀 수해지역 노인들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문헌고찰

### 1. 수해와 노인의 피해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연령에 따라 수해에 대한 피해정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다른 연

령대에 비해 노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가 2-3배 이상 많으며 간접적인 피해도 노인에게 더욱 많이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Friedsam, 1960; Chung et al., 2004). 또한 피해상황에서도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집에서 피해를 입은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Friedsam, 1960, 재인용), 재해시에 젊은 사람들에 비해 피해에 대해 더욱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2004; Lyons & McClendon, 1990). 이는 그간 재해의 피해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간과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들이 피해를 더욱 많이 입는 이유는 자신들의 노화, 직업과 역할의 상실, 가족의 상실, 경제적이고 신체적인 쇠퇴 등을 들 수 있고, 보험 미가입이나 대처 부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Fields, 1996; Aldrich & Benson, 2008). 따라서 노인의 특성에 따른 피해의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재해는 노인들에게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손해를 입힌다. 우선 신체적으로 노인들은 건강 쇠퇴으로 인해 재해시에 질병에 더욱 취약해지게 된다. Aldrich & Benson(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약 80% 이상이 재해를 겪는 동안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욱 건강이 약해졌음을 보고하였다. 인적피해에서도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보다 노인의 사망자가 높게 나타났는데 Motoyuki & Wakana(2006)의 연구에서는 수해 중 전체 사망률의 60%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상황시에 심리정서적으로도 노인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강화되고 심리적 외상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Phifer(1990)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들은 재해 후 16-18개월 까지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은 장기적으로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망이 약화되거나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자신이 애착하던 물건의 상실 등은 노인들에게 최고조의 박탈감을 가져와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겪는 심리적 충격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된다(Khon et al., 2005; Ollendick & Hoffmans, 1982; Krause, 1987). Chung & Kim(2010)의 연구에서는 재해를 경험한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노인들에게 신체나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재해 상황시 노인들의 반응도 젊은 집단과 다르게 나타나 특정 위험 집단으로 지목되는데, 노인들은 수해 복구시에도 대피하는데 주저하여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재해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 더욱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Friedsam, 1960). 특히 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 등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높고, 점차 노인부부나 혼자살고 있는 가구들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친구나, 이웃, 가족의 도움 없이 사는 독거노인들은 재해에 대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Fernandez et al., 2002).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독거노인들은 홍수 등으로 인해 피난을 해야 할 경우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건강한 노인 이어도 자력으로 피난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보고되었고, 피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이영자, 2007, 재인용)

이와같이 노인들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과 달리 수해시 더욱 위험에 빠질 취약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인들의 위험요소의 축적은 재해후의 복구과정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장기적인 심

리적인 외상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해기간 동안 취약 노인인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2. 수해경험 노인의 서비스 활용

수해시 노인들의 복잡한 요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재해구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재해 후 노인들의 적응에 중요하다. 재해 복구시 서비스는 크게 구호인적자원과 구호서비스로 살펴볼 수 있는데, 구호인적자원은 비공식 인적자원과 공식인적자원으로 나뉘고, 구호서비스는 재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인명구조, 구호물품의 제공, 의약품 제공, 심리적 안정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러한 지역사회 구호서비스의 붕괴나 부적절한 서비스의 지원들은 재해 후 노인들의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Armen et al., 1994). 또한 구호서비스의 이용은 재해에 대한 복구적응과 노인의 우울, 사회적인 기능, 신체화 문제 등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Chung et al., 2004; Livingstone et al., 1994). 그러나 Knight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의 반응과 달리 노인들이 재해 스트레스에 덜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때 비공식적 인적자원의 도움이 중요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수해 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데,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은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과 달리 매우 낮게 나타났다(Fernandez et al., 2002; Bell et al., 1978; Kaniasty & Norris, 1995). 이는 재해에 대한 노인들의 반응이 다른 연령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서 기인한다. 노인들은 재해상황에 대한 반응이 젊은 사람들보다 느리고, 재해 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hifer et al., 1988). 특히 노인들은 재해 후 명백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였다(Thomas & Thomas, 1979). 공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수해상황의 회복을 위해서 보험이나 다른 경제적 자원들을 이용하려 하지 않으며, 보험을 확장하거나 저축을 늘리는 등의 대비활동을 꺼려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어떤 부정적 결과들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성향도 나타났다(Thompson et al., 1993).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수해 피해나 복구과정에서 겪는 충격에 취약하다고 고려되는 집단인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구호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노인들이 제공받은 구호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보면, 구호인적자원에서 공식적인 인적자원보다는 비공식적인 인적자원의 도움이 더욱 유용하였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노인들은 적십자, 푸드스탬프, 경찰이나 연방 재난 구조센터 등의 공식적인 지원을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부분의 원조는 지역사회 내의 이웃, 친구 등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ell et al.,

1978). Thomas & Thomas(1979)도 노인들은 정부기관의 공식적 자원보다 비공식적인 자원을 더 활용하였으며, 이는 노인들에게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Watanabe 등(2004)의 연구에서도 수해 후에 노인들에게 가족, 친구나 이웃과 같은 친밀한 대상으로 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 것이 우울 증상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즉각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지속적으로 친구나 이웃과 같은 친밀한 사람들의 지지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에게는 비공식적 인적자원의 지원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구호서비스에서는 일시적인 구호품의 제공보다는 신체적인 약화로 인해 의료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게 나타났고, 노인들이 갖는 특별한 욕구에 맞춘 의료적 컴퓨터서비스가 필요하며 봉사자나 관리자 교육 시에도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Clinton et al., 1995). 또한 노인들에게는 수해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Kaniasty & Norris, 1995), 이는 수해로 인해 애착하는 물건이나 배우자, 자녀, 친구, 친척 등의 상실을 겪은 노인들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심리 정서적 서비스 제공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Kohn et al., 2005). 그러나 자연재해 후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많은 우울 증상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서비스나 다른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icehurst et al., 199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수해시에 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함을 지적한 것이며, 다른 연령층과는 차별적으로 구호서비스나 인적자원을 지원해야하는 일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들의 이러한 서비스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요인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연령이나 건강상태, 거주기간, 동거가족 여부 등이 노인들의 서비스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ung et al., 2004; Bell et al., 1978; Aldrich & Benson, 2008; Cherniack, 2008). 즉,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서비스를 적게 활용하였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노인만 사는 가구형태일수록 서비스를 덜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들의 특성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해피해 특성으로는 재해의 피해 정도와 재해로 인한 가족의 손실 등이 서비스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Carr et al., 1995). 셋째, 수해상황에 대한 노인의 대처행동도 인적자원이나 서비스 활용에 영향을 미쳤는데, 수해를 경험한 노인이 회피적으로 대처할수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Huerta & Horton, 1978). 즉 노인들은 홍수 등으로 피난을 해야 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방문해 주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피난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자, 2007, 재인용). 이러한 회피행동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고, 노인들이 재해복구에 역기능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Chung et al., 2004). 이처럼 노인들은 재해시에 스스로 고립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자원을 구하고 해결하려는 대처행동은 노인이 재해시에 구호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해에 대한 취약집단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노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재해상황들이 구호서비스 활용간의 관계가 없음을 밝힌 연구들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수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노인이나 독거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의 특성에 맞는 구호서비스가 시급히 요구되나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III. 실증분석

#### 1.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6년 호우피해가 집중되었던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고흥에 거주하며 수해의 경험으로 인해 재산피해, 인명피해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강원도의 경우는 각 군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가장 수해가 심했던 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인제군 가리산리, 덕산리, 덕적리, 하추리, 한계 2리, 한계 3리의 여섯 마을, 평창군의 상월오개 1리, 상월오개 2리, 속사 1리, 속사 2리의 네 마을을 선정하였다. 고흥은 각 도청, 시청, 군청의 재난대책본부의 자료를 토대로 가장 인적 피해가 심했던 지역을 선정하였고 고흥읍, 도양읍, 금산면이 선정되었다. 자료 수집은 사전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들이 마을 이장의 도움을 얻어 피해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1:1 면접을 하거나, 인근 교회와 마을회관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강원도의 경우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고흥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얻었다. 노인들의 경우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원들이 질문을 읽어주고 답변을 들은 뒤 응답에 표기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 이었다. 총 20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설문조사 도구

설문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수해로 인한 피해특성, 대처전략, 구호인적자원과 구호서비스 활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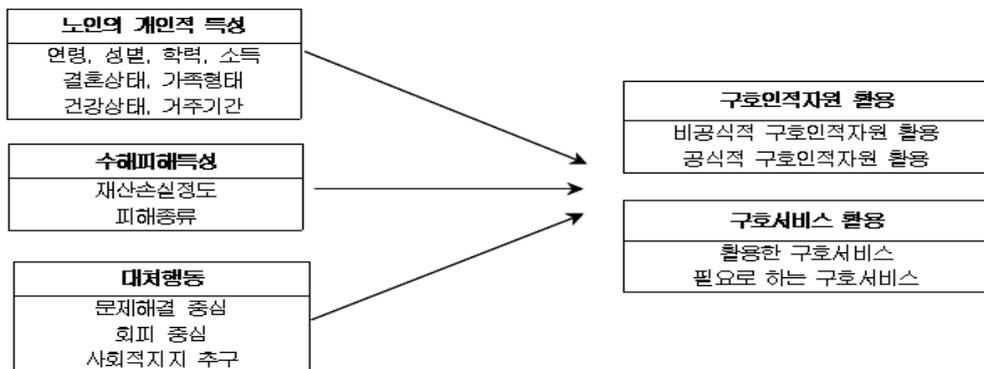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일반적 특성, 건강 및 경제적 상태, 결혼상태, 가족형태, 거주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력을 조사하였고 건강 및 경제적 상태는 주관적 건강

상태와 소득액을 측정하였다. 결혼상태는 기·미혼 상태, 가족형태는 노인 단독세대와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는 형태로 조사하였다. 거주기간은 수해가 발생한 현재 거주지역에서 살아온 기간을 년단위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해피해특성은 재산손실정도를 비율(%)로 파악하였고, 수해로 인한 피해종류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둘 다 입은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대처전략과 관련된 문항은 Amirkh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활용하였다. CSI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조언이나 정서적 지지를 찾음으로써 대처하려는 사회적 지지 추구방식,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부딪혀 직접적으로 문제를 다루려는 문제해결 중심 대처방식, 직접적으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회피중심의 대처방식이다. 각 하위척도별 11문항씩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가 지난 6개월간 일어났던 스트레스 사건 중 한 가지를 회상하면서 실제 취했던 대처 반응을 사용한 정도에 따라 3점 리커트 척도로 표시하면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 대처전략 척도의 신뢰도는 문제해결중심 .939, 회피중심 .746, 사회적 지지추구 .895로 나타났다.

구호인적자원과 구호서비스 문항은 중앙재해대책본부(2003)와 소방방재청(2005)이 실시한 조사 항목을 참조해 개발하였다. 구호인적자원은 비공식적 구호인적자원과 공식적 구호인적자원으로 나누었는데, 비공식적인 구호인적자원은 노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사람들을 의미하고, 공식적 구호인적자원은 재해시 국가나 단체로부터 받는 지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공식 구호인적자원은 가족, 이웃, 친구, 친척, 공식적 구호인적자원은 공무원/군인, 자원봉사자, 종교단체로 구분하여 이용한 자원에 중복 표기하도록 하였다. 구호서비스는 재해구호시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해경험시 받은 구호서비스와 앞으로 필요로 하는 구호서비스 리스트를 나열하여 중복표기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3) 통계 처리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 프로그램(versio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해피해정도, 구호인적자원, 구호서비스 이용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구호인적자원과 구호서비스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해피해 정도, 대처전략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2.9세였으며, 65-74세 이하 65.5%, 75세 이상 34.5%로 나타났다. 성별분포는 남성 40.4%, 여성 59.6%를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무학 42.4%, 초등학교 졸업 39.9%, 중학교 졸업 7.9%, 고등학교 졸업 이상 6.4%, 대졸 1.5%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독거 17.2%, 노인부부 세대 56.7%, 자녀와 동거 24.2%로 나타나 노인들만 거주하는 경우가 73.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노인들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4점 만점에 2.12점,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2.65점으로 나타났다. 수해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수해를 경험한 전체 노인 중 86.2%가 피해를 겪었으며, 피해사례는 재산피해 76.4%, 인명피해 0.5%,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모두 9.4%로 분포하였다. 한편, 이들 노인들의 대처전략은 하위요인별로 3점 만점에 문제해결중심 1.78점, 회피중심 1.34점, 사회적 지지추구 2.03점으로 나타났다.

### 2) 수해경험 시 활용한 구호인적자원 및 구호서비스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이 활용한 구호인적자원은 <표 1>과 같다. 수해경험 시 노인들이 공무원/군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21.7%, 자원봉사자 20.6%, 이웃 14.1%, 친척 6.5%, 친구 4.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수해경험 노인은 인적자원 활용의 경우 공무원/군인, 자원봉사자 등의 공식적인 자원의 활용비율은 높지만, 가족을 제외한 비공식적 자원인 이웃, 친척, 친구의 활용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해 경험 노인들이 활용한 구호서비스를 살펴보면, 생필품 지원 42.5%, 신체적 치료 및 약품 지원 26.4%, 인명구조 12.7%, 심리적 안정 8.4%, 정확한 정보 제공 6.2%, 가족의 소식 제공 3.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해 시 물질적 서비스의 활용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수해시 전체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구호서비스는 생필품 제공 24.0%, 신체적 치료 및 약품지원 19.4%, 인명구조 19.1%, 심리적 안정 14.3%, 정확한 정보 12.2%, 가족의 소식 11.0% 순이었다. 조사대상 노인이

수해 시 활용한 구호서비스와 앞으로 필요로 하는 구호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향후 필요한 서비스에서 생필품 제공과 신체적 치료 및 약품 지원의 욕구는 줄어든 반면, 가족의 소식 제공, 정확한 정보제공, 심리적 안정 등의 구호서비스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수해경험 시 활용한 인적자원과 서비스

활용한 구호인적자원			구호서비스		
구분		빈도(명)/비율(%)	구분	활용한 서비스 빈도(명)/비율(%)	필요한 서비스 빈도(명)/비율(%)
비공식적 자원	가족	83(21.7)	인명구조 생필품 신체치료 및 약품	41(12.7)	123(19.1)
	이웃	54(14.1)		137(42.5)	155(24.0)
	친구	16(4.2)		85(26.4)	125(19.4)
공식적 자원	친척	25(6.5)	심리적 안정 정확한 정보 가족의 소식	27(8.4)	92(14.3)
	공무원/군인	101(26.4)		20(6.2)	79(12.2)
	자원봉사자	79(20.6)		12(3.7)	71(11.0)
	종교단체	7(1.8)			
	기타	18(4.7)			

\*중복응답 처리한 결과임.

### 3) 수해경험 시 활용한 구호인적자원 및 구호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수해경험 시 활용한 구호인적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해경험 노인들의 구호인적자원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수해경험 시 활용한 인적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비공식적 인적자원 활용			공식적 인적자원 활용			
	b	β	t	b	β	t	
개인적 특성	연령	-.016	-.090	-1.108	-.006	-.044	-.521
	성별	.192	.084	.916	.063	.037	.395
	최종학력	.030	.027	.285	-.067	-.082	-.833
	결혼상태_기혼	.024	.010	.124	.063	.037	.427
	월평균 총소득	.123	.172	2.037*	.118	.222	2.551**
	주관적 건강상태	.139	.162	2.037*	.055	.087	1.055
	거주기간	.010	.193	2.447*	.002	.064	.787
피해 특성	가족형태	.162	.067	.819	.530	.299	3.512**
	재산손실정도	.000	-.055	-.704	.000	-.007	-.084
	피해(재산피해)	-.184	-.022	-.282	-.364	-.060	-.732
대처 행동	피해(인명피해)	.135	.173	.906	.113	.049	.529
	문제해결	.044	.026	.239	.074	.058	.524
	회피중심	-.206	-.065	-.788	-.352	-.149	-1.760+
	사회적지지 추구	.468	.237	2.500**	.139	.095	.971
	F		2.734**		2.090**		
	R2		0.219		0.148		

+p<.10, \*p<.05, \*\*p<.01, \*\*\*p<.001

주) 더미변수 기준 : 성별-남성, 결혼상태-기혼, 피해종류 - 인명, 재산피해 둘다, 동거형태 - 노인단독가구

먼저 비공식적 인적자원 활용과 관련된 모델은 유의하였으며( $F=2.734$ ,  $p<.01$ ), 모델의 설명력은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인적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대처전략 중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소득과 건강상태, 거주기간으로 나타났다. 즉 대처전략 중 사회적 지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beta=.237$ ), 소득이 높고( $\beta=.172$ )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beta=.162$ ), 거주기간이 길수록( $\beta=.193$ ) 비공식적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식적 인적자원 활용과 관련된 모델은 유의하였으며( $F=2.090$ ,  $p<.01$ ), 모델의 설명력은 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인적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대처행동 중의 회피중심, 소득과 동거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피중심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공식적 자원을 적게 활용하였고( $\beta=-.131$ ), 소득이 높을수록( $\beta=.201$ ), 동거하는 자녀가 있을수록( $\beta=.299$ ) 공식적 인적자원을 활용하였다.

(2) 수해 시 구호 서비스 활용 및 필요로 하는 구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해경험 노인들이 활용한 구호서비스 및 필요로 하는 구호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수해경험 시 활용한 서비스 및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활용한 서비스			필요로 하는 서비스			
	b	$\beta$	t	b	$\beta$	t	
개인적 특성	연령	-.007	-.030	-.367	-.019	-.060	-.720
	성별	.073	.026	.279	.421	.104	1.103
	최종학력	.160	.113	1.191	-.165	-.084	-.853
	결혼상태_기미혼	.062	.022	.251	-.313	-.076	-.876
	월평균총소득	.121	.135	1.587	.172	.135	1.561
	주관적 건강상태	.059	.056	.697	.103	.067	.822
	거주기간	.007	.101	1.274	-.013	-.147	-2.001*
	가족형태	.270	.090	1.075	.634	.149	1.762
피해특성	재산손실정도	-.001	-.096	-1.211	.001	.043	.540
	피해(재산피해)	-.873	-.071	-.902	-.365	-.164	-.201
	피해(인명피해)	.397	.102	1.133	-.721	-.132	-1.410
대처행동	문제해결	-.051	-.024	-.217	.077	.025	.227
	회피중심	-.767	-.195	-2.343*	-.237	-.041	-.492
	사회적지지 추구	.692	.284	2.883**	.910	.259	2.674**
F		3.702***			2.206**		
R2		.272			.190		

\*  $p<.05$ , \*\*  $p<.01$ , \*\*\*  $p<.001$

주) 더미변수 기준 : 성별-남성, 결혼상태-기혼, 피해종류 - 인명, 재산피해 둘다, 동거형태 - 노인단독가구

먼저 활용한 구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델은 유의하였으며( $F=3.702$ ,  $p<.001$ ), 모델의 설명력은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한 구호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대처전략 중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회피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처전략 중 사회적 지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beta=.284$ ), 대처전략 중 회피를 추구하지 않을수록( $\beta=-.195$ ) 활용한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앞으로 필요로 하는 구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델은 유의하였으며( $F=2.206, p<.01$ ), 모델의 설명력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필요한 구호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거주기간과 대처전략 중 사회적 지지 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beta=-.147$ ), 대처전략 중 사회적 지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beta=.259$ ) 서비스 활용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수해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경험 노인들의 구호인적자원과 구호서비스 활용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해 발생시 노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수해노인들이 활용한 구호 인적자원의 경우 공식적 자원의 활용이 비공식적 자원의 활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 연구에서 노인들이 비공식적 자원을 더욱 많이 활용했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고, 수해시에 비공식적 자원이 노인들에게 더욱 유용했음을 밝힌 결과들이 있어서(Bell et al., 1978; Watanabe et al., 2004)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해를 입은 본 연구의 대상 노인들은 노인가구로만 구성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70% 이상이어서 주변에 활용 가능한 비공식적인 인적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구나 친척,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망이 더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Johnson & Troll, 1992; Garfien & Herzog, 1995) 비공식인적자원 활용에 제약이 있을수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노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식이나 교육이 부족하여 비공식적 자원활용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해지역 노인들은 실제 수해상황에서는 물적 서비스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필요한 구호서비스로는 가족의 소식제공, 정확한 수해 정보 제공, 심리적 안정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수해 시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가족들의 인명피해 소식 등을 알려주는 것과 수해 경험으로 인한 충격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주고 수해상황과 예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비공식적 구호인적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대처전략 중 사회적 지지추구와 소득 및 건강상태, 거주기간이었고, 공식적 인적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소득과 동거형태로 나타나 소득이 적거나 노인들만 거주하는 가구형태의 노인들에 대한 인적자원 활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처행동 중 문제행동과 회피중심이 관련 변수로 나타나 개인의 대처행동 성향이 인적자원활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호서비스 활용과 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공통적으로 대처전략 중 사회적 지지 추구가 중요하였다. 특히 구호서비스 활용에서 회피보다는 적극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구호서비스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구호서비스의 경우 노인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였는데,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고 지지자원들을 덜 요청한다는 선행연구(Friedsam, 1960, Cherniack, 2008)와 비슷한 결과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수해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와 같이 수해지역에서 고위험 재해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 등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정보 확보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제 자신의 생활현장을 떠나려 하지 않는 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스템으로 활용해야 한다. 외국(Little et al, 2004; O’Brien, 2003)의 경우 노인들이 살고 있는 수해 위험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체계(mapping system)’를 구축하여 이들의 응급대피를 위한 주거지 위치 등을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자료가 가지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처럼 ‘금고방식제도’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재해약자에 대한 정보를 비상시에만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노인에 대한 정보를 금고 등에 넣어 보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비상시 인명구조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이영자, 2007 재인용).

둘째, 수해발생시 노인들을 위한 ‘재해구호 전담반(Task Force Team)’을 조직, 운영하여 노인들이 향후 원하는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나 가족소식 제공 등 이들의 욕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대처능력이 서비스나 자원 활용에 중요하게 나타났으므로 평상시에 노인들의 수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재해관련기관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전담반에서 노인의 건강과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한 교육, 자동 경보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Aldrich & Benson, 2008; Jellinek I., 2002).

셋째,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조 전담반’의 활성화를 통해 수해시 비공식적 자원 활용이 취약한 노인들의 대피에 대한 도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조 전담반’은 일본에서 실시한 ‘주민자조방재조직’중 ‘노약자들을 위한 대피도우미’ 제도와 유사한 것인데, 실제로 이 제도는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남, 2008). 따라서 취약집단인 노인들의 수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 인적자원 체계의 강화를 통해 수해시 노인들이 회복과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원도. 2006. 내부자료.

강영준 · 김우정 · 박주옥. 2008. 태풍 나리와 관련된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특성. 대한응급의학회지. 19(5): 462-273.

- 김경남. 2008.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방재력 향상. 강원발전연구원 뉴스레터. 11: 4.
- 소방방재청. 2005. 방재 및 재난관리행정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국립방재연구소.
- 이영자. 2007. 재해시 지역자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일본의 인구50만 이상 도시의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0(2): 219-242.
- 정순돌. 2009.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재난현황과 인식. 한국방재협회 기사.
- 중앙재해대책본부. 2003. 풍수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행정자치부.
- Aldrich, N. & Benson, F. W. 2008, Disaster Preparedness and the Chronic Disease Needs of Vulnerable Older Adults. *Preventing Chronic Disease Public Health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1): 1-7.
- Amirkhan, J. H. 1990. A Factor-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ies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 - 1074.
- Armen, K., Goenjian, M. D., Lois, M., Najarian, M. D., Robert, S., Pynoos, M. D. & Alan, M. 199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Elderly and Younger Adults After the 1988 Earthquake in Armenia.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1:6.
- Bell, B. D., Kara, G. & Batterson, C. 1978. Service Utilization and Adjustment Patterns of Elderly Tornado Victims in an American Disaster. *Mass Emergencies*. 3: 71-81.
- Carr, V. T., Lewin, T. J., Webster, R. A., Hazell, P. L., Kenardy, J. A. & Carter, G. L. 1995. Psychosocial Sequelae of the 1989 Newcastle Earthquake: I. Community Disaster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Morbidity 6 Months Post-disaster. *Psychological Medicine*. 25: 539-555.
- Cherniack, E. P. 2008. The Impact of Natural Disasters on the Elderly. *American Journal of Disaster Medicine*. 3(3): 133-139.
- Chung, M. C., Werrett, J., Easthope, Y. & Farmer, S. 2004. Coping with Post-trauma Stress: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Comparison. *Internatioan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9: 333-343.
- Chung, S. & Kim, E. 2010.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isaster Victims: A Comparative Study on Typhoon and Oil Spill Disasters.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3(5): 369-374.
- Clinton, J. J., Hagebak, B. R., Sirmons, J. G., & Brennan, J. A. 1995. Lessons Learned from the Georgia Floods. *Public Health Reports*. 110: 684-688.
- Fernandez, L., Byard, D., Lin, C., Benson, S., & Barbera, J. 2002. Frail Elderly as Disaster Victims: Emergency Management Strategies.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17(2): 67-74.

- Fields, R. 1996. *Severe Stress and the Elderly*. In *Aging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Rukin, P. & Talbott, J. American Psychiatric Press: Washington, DC.
- Friedsam, H. J. 1960. Older Persons as Disaster Casualtie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Behaviour*. 1: 269-273.
- Friedsam, H. J. 1962. Older Persons in Disaster. *Man and Society in Disaster*. Edited by Baker, G.W., and Chapman, D.W. New York, Basic Books: 151-182.
- Garfein, A.J., Herzog, A.R. 1995. Robust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50B(2): .77-87.
- Haines, V. A., Hurbert, J. S., & Beggs, J. 1996.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Support Provision: Provider Characteristics, Personal Network, Community Context, and Support Following Life Ev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3): 252-264.
- Huerta, F. & Horton, R. 1978. Coping Behaviour of Elderly Flood Victims. *The Gerontologist*. 18(6): 541-546.
- Jellinek I. 2002. *Perspectives from the Private Sector on Emergency Preparedness for Senio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ew York City: Lessons Learned from Our City's Aging Services Providers from the Tragedy of September 11, 2001*. New York (NY): Council of Senior Centers and Services of New York City, Inc.
- Johnson, C. L., & Troll, L. 1992. Family Functioning in Late, Late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7: 66-72.
- Kaniasty, K., & Norris, F. H. 1995. In Search of Altruistic Community: Patter of Social Support mobilization Following Hurricane Hugo.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4): 447-477.
- Knight, B. G., Gatz, M. & Heller, K.(2000). Age and Emotional Response to the Northridge Earthquake: a Longitudinal Analysis. *Psychological Aging*. 15: 627-634.
- Kohn, R., Levav, I., Garcia, I. D., Machuca, M. E., & Tamashiro, R. 2005. Prevalence, Risk Factors and Aging Vulnerability for Psychopathology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in a Developing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 835-841.
- Krause, N. 1987, Exploring the Impact of a Natural Disaster on the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Dlder Adults. *Journal of Human Stress*. 12: 61-69.
- Little, B., Gill, J., Schulte, J., Young, S., Horton, J., Harris, L., Batts-Osborne, D., Sanchez, C., Malilay, J., & Bayleyegn, T. 2004. Rapid Assessment of the Needs and Health Status of Older Adults after Hurricane Charley—Charlotte, DeSoto, and Hardee Counties, Florida, August 27-31. *Morb Mortal Wkly Rep*. 53(36): 837-40.

- Livingstone, H. M., Livingstone, M. G. & Fell, S. 1994. The Lockerbie Disaster: A 3-year Follow up of Elderly Victim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9: 989-994
- Lyons, J. & McClendon, O. 1990. Changing in PTSD Symptomatology as a Function of Aging. *Nova-Psy Newsletter*. 8: 13-18.
- Motoyuki, U. & Wakana, K. 2006. Characteristics of a Heavy Rainfall Disaster in July 2006. *Journal of Japan Society for Natural Disaster Science*. 25(3): 393-402.
- O'Brien, N. 2003. *Emergency Preparedness for Older People*. 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USA Issue Brief.
- Ollendick, D., & Hoffman, M. 1982. Assessment of Psychological Reaction in Disaster Victim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157-167.
- Phifer, J. F., Kaniasty, K. Z., & Norris, F. H. 1988. The Impact of Natural Disaster on the Health of Older Adults: A Multiwave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1): 65-78.
- Phifer, J. F. 1990. Psychological Distress and Somatic Symptoms after Natural Disaster: Differential Vulnerability amo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5(3): 412-420.
- Thomas, S. & Thomas, E. 1979. Assessing Long-Term Impacts of A Natural Disaster: A Focus on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19(6): 555-566.
- Thompson, M., Norris, F. H. & Hanacek, B. 1993. Age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 of Hurricane. *Psychology and Aging*. 8(4): 606-616.
- Ticehurst, S., Webster, R. A., Carr, V. J., & Lewin, T. J. 1996. The Psychosocial Impact of Earthquake on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1: 943-951.
- Watanabe, C., Okumura, J., Chiu, T. Y., & Wakai, S. 2004.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Displaced Older Adults following the 1999 Taiwan Earthquak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63-67.

---

**鄭順攄**: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사회복지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A study of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patterns in a network of elderly service organizations),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사례관리실천 등이고 노인과 재난대응전략, 심리사회적 안녕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isaster victims: A comparative study on typhoon and oil spill disasters(2010), .은퇴한 배우자를 둔 중고령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2010) 등이 있다(sdchung@ewha.ac.kr).

**金高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년기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현재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임상, 장애

인복지, 노인복지 등이다. 주요논문으로는 장애아동 아버지의 장애에 대한 태도, 가족신념, 양육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2010), 경로당 임원 노인에게 있어 리더쉽의 의미에 관한 연구(2008) 등이 있다(goeunk@kw.ac.kr).

투 고 일: 2010년 11월 15일

수 정 일: 2010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5일

## Human Resources and Service Utilization of Older People Affected by Flood Disasters

Soon Dool Chung, Go Eun Kim

This study was intended to observe the human resources and service utilization of the elderly who affected by flood disaster and to find factors influencing resource utilization of them. A total of 204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who were directly or indirectly damaged by flood disasters in Pyungchang, Inje, and Gangwon province of 2006 and in Goheung and Jeju island of 2007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 survey research method was used to collect data.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elderly people are more likely to use formal human resources than informal human resources. Although the elderly were utilized basic life supplies and medical care and medicine supplies, they would like to utilize more information for family safety, accurate information for the situation, and psychological stabilization in the future. The factors influencing informal human resource utilization were social support as a coping strategy, self-rated health status, income, period of residence. The factor influencing formal human resource utilization was avoidance as a coping strategy, income, living arrangement. For past service utilization, social support and avoidance as a coping strategy appeared as significant variables. For future service utilization, social support as a coping strategy and period of residence were found as significant variables.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 of elderly people should be considered to take measures to provide services to the flood disaster victims.

**Key words:** flood disaster, elderly people, human resources, service resources, service utilization